

생활속의 원자력 문화 구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새 해 벽두부터 잠깐이나마 전 세계를 긴장시킨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 가스 공급 중단 조치 위협은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인류의 미래는 자원 및 에너지, 경제 성장,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달려 있고, 이의 핵심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음을 새삼 확인해주고 있다.

지난 해 원자력계의 오랜 현안 과제였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다.

원자력 발전 설비는 세계 6위 규모를 유지하면서 신고리 원전 1, 2호기와 월성 원전 1, 2호기가 건설에 들어가는 등 큰 무리없이 신규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울진 원전 6호기가 준공되

어 설비 용량이 1,771.6만kW로 늘어났다.

국제적으로는 '핵확산 방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원자력이 핵무기가 안고 있는 도덕적인 부담을 덜면서 평화적 이용을 통해 인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기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인류를 위한 가치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재단에서는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생활 속의 원자력 문화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차세대 에너지 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또한 글로벌 원자력 홍보 기관으로서 올 한해에도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행복 에너지, 생활 속의 원자력' 이미지 제고

원자력 문화의 구현은 원자력을 통해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 가고 이것이 생활 양식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원자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자력이 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원자력에 숨어있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바로 원자력 문화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금년에는 특히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의 효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신뢰', '창의', '커뮤니케이

선',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체험 전시관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차세대 홍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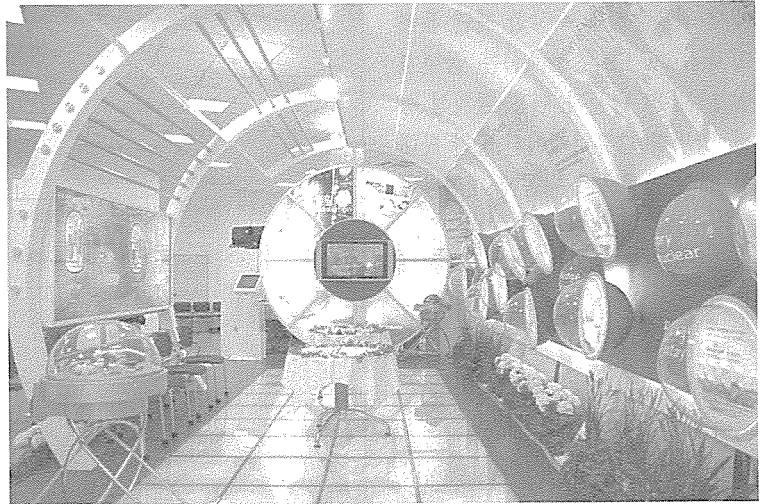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보고 만져보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 학습을 통해, '오해로 인한 두려움없이' 원자력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세대가 원자력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올해는 지난해에 마련한 금천구 독산동 사옥 1층에 체험 전시 홍보 공간을 운영,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피 현상 및 갈등 완화를 위한 장기적 교육, 문화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115평 규모의 전시관을 갖추고 주 관람객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원자력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플래시 영상, 퀴즈 게임, 3차원 그래픽 등 전시물 20여종으로 구성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각종 영상과 모형을 통해 직접 보고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연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에 마련한 금천구 독산동 사옥 1층에 체험 전시 홍보 공간을 운영,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피 현상 및 갈등 완화를 위한 장기적 교육, 문화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여 전시관이 과학 과목 특별 학습 등 학교 교육 보완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실험 교실을 열고 과학실험 경진 대회나 우수 작품 전시회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미나, 이벤트, 강좌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차세대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지역 행사를 통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밖에도 전기에너지관, 엑스포 공원 에너지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등 6개소에 원자력관을 상설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차세대 대상 과학교실을 임시 운영하고 휴대용 원자력 모형물과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신의 정보 기술을 활용한
IT 홍보 사업 강화**

인터넷은 이제 일상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만큼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해에도 IT를 활용한 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는 등 IT의 전략적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기업 커뮤니케이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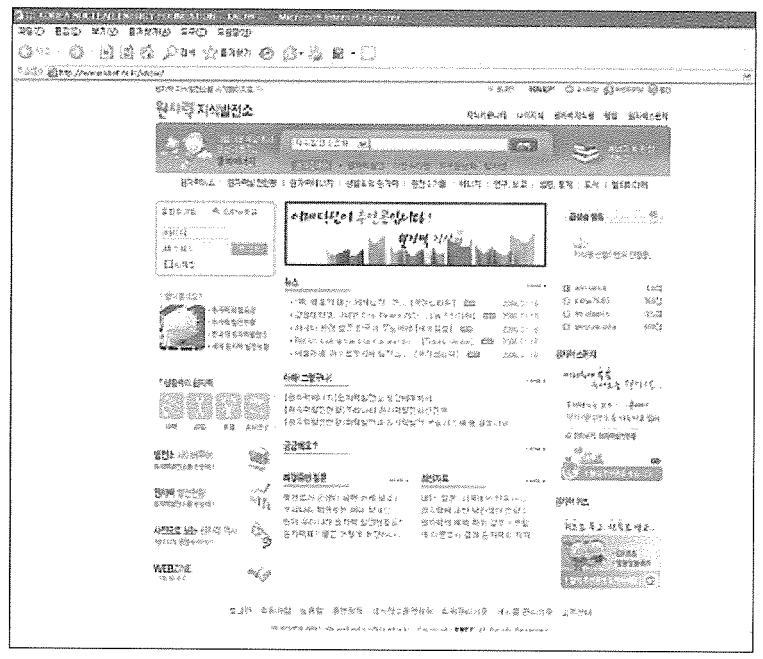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재단 홈페이지(www.knef.or.kr)는 금년 1월 1일부터 방문자 이용 편의성 강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간 확대 등 고객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더불어 일반 국민, 교사, 어린이 등 방문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메인 홈페이지와 원자력지식발전소 홈페이지 외에 교사마당, 어린이마당 홈페이지를 함께 개편하였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원자력지식발전소(knef.or.kr/know)는 원자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본격적인 지식 기반 커뮤니티 공간이다. 원자력 소식을 '원자력뉴스'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원자력에너지의 원리와 현황, 원자력 동영상과 사진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퀴즈 이벤트 등 각종 참여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특히 차세대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 정보 관리 시스템(NIMS)을 이용한 정보 관리 및 실시간 보급을 통해 원자력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업무 자료 및 각종 홍보물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지식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원자력지식발전소(knef.or.kr/know)는 원자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본격적인 지식 기반 커뮤니티 공간이다.

홍보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원자력 전문 홍보 기관의 위상 정립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홍보 수요에 맞는 눈높이 원자력 홍보를 통해 수신자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홍보 원칙 아래 계층별, 원자력에 대한 인식 수준별, 그리고 관심도별 등 홍보 타겟별 홍보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원자력 전문 홍보 기관'으로서 원자력 선진국뿐만 아

니라 후발국과도 협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원자력은 전기 에너지라는 형태로, 그리고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형태로 우리 삶의 일부이자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은 깨끗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평화를 위한 메시지도다.

금년 한 해도 이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